

“제주를 간편식 제조 분야 거점으로”

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본격화
농식품부 공모 사업… 현재 전국에 5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거점 시설이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한다.

2025년 기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지원 사업비는 국비 포함 개소당 105억원(사업 기간 3년) 규모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모로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전북 익산(식품 기반 식품), 경북 포항(식품 로봇), 전남 나주(식품 업사이클링), 경기 과천·강원 춘천(개인 맞춤형 식품), 경북 의성(세

포 배양 식품) 등 5개소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는 세포 배양 식품 생산 기술, 식물 기반 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 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 업사이클링,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친환경 포장, 식품 로봇으로 나뉜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간편식 제조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9일 제주대 산학협력관에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제주푸드테크협의회와 공동으로 ‘월드푸드테크 2025 간편식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삼양식품 김남숙 본부장, 하림 남기현 대표, 잇더컴퍼니 김봉근 대표, 해녀의 부의 김하원 대표 등 도 내외 푸드테크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간편식 제조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신기술과 전략을 논의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부부처사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제주가 간편식 제조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제주 농산물의 부가 가치와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제주 그린+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하며 청정 제주 원불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6·25 예비검속 희생자 원혼 합동위령제가 9일 서귀포시 하원동 삼면 위령제단에서 봉행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억울한 죽음 당한 원혼들이여, 편히 쉬소서” 6·25예비검속 희생자 삼면 원혼 합동위령제

6·25 예비검속 희생자 삼면유족회는 9일 서귀포시 하원동 삼면 위령제단에서 ‘예비검속 희생자 삼면 원혼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위령제에는 유족과 오순문 서귀포시장, 김창범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지역 도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헌화·분향하고 추념사를 낭

독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삼면 원혼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발동된 예비검속에 의해 당시 서귀면, 중문면, 남원면 등 3개 면에서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됐다 한 달여 만에 계엄사령부 지시에 따라 당시 해병 6중대의 트럭에 실려나간 뒤 행방불명된 85명의 희생자를

말한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2001년 처음으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를 계기로 삼면 유족회를 결성하고, 위령비를 건립해 학살당한 날로 추정되는 음력 6월 15일 매년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평화와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돌봄 전달 체계 구축안 모색
제주사회복지연구원 포럼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 연계 지역 돌봄 전달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시범 사업 경과와 타 지역 통합돌봄 전달 체계 구축 사례를 듣고 제주 지역 시사점을 제안하는 자리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경과 및 제주 돌봄 전달 체계 구축 방향’을,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서울형 통합돌봄 전달 체계 구축 방향 및 제주 지역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이 마련된다. 전선희기자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공론화 절차 본격화
도, 어제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편호텔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열고 기존 조문별 특례 중심의 권한 이양방식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했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필수 국가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넘기는 제도개선 방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권한 이양방식을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별치 특례 확보도 함께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 조례제정권의 실무 현실, 포괄이양의 규범적 허용성과 입법화 방향, 재정 특례 확보방안, 포괄적 권한이양과 별치특례 등을 논의했으며 법제관, 연구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사무권한 이양 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 확대, 별치 부과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방안,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 현실적인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본격화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형 분권모델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5300여 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입법과 정책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자치 제도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분권의 해법이자 대한민국형 고도 자치모델의 실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4·3기록물 기록유산 등재 의미 나눈다

도, 18일 기념행사 개최
평화공원서 인증서 봉헌식
해변공연장전 평화음악회

제주도는 오는 18일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도의회·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도·4·3평화재단·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관한다.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국민과 도민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4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는 4·3영령들에게 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

음을 알리는 봉헌식이 진행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과 보고문 낭독,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 봉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세계가 기억하는 제주4·3, 기억으로 잇는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공식 등재 기념식과 평화음악회가 열린다.

평화음악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송소희, 소향, 윤도현 등의 공연과 함께 2024 뉴욕국제음악콩쿠르 1위 수상자인 제주 출신 강지예(예원학교 재학)의 바이올린 연주, 제주도립합창단·4·3평화합창단·어린이합창단·하도해녀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

관람료는 무료지만 온라인 사전 예약 추천 방식으로 입장 가능하다. 객석은 총 1200석 규모다. 제주도는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QR코드 등으로 사전 예약 접수 후 15일 오후 3시 전자 추첨을 진행한다. 신청은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당첨자에게 동반 1인을 포함한 입장권 2매가 지급된다.

등재 기념식 행사장에서는 제주 4·3의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등재 기록물 특별전도 만날 수 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초등학교생들이 4·3을 배우고 나서 느낀 생각을 담은 이야기와 그림 작품도 선보인다.

4·3기록물은 지난 4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